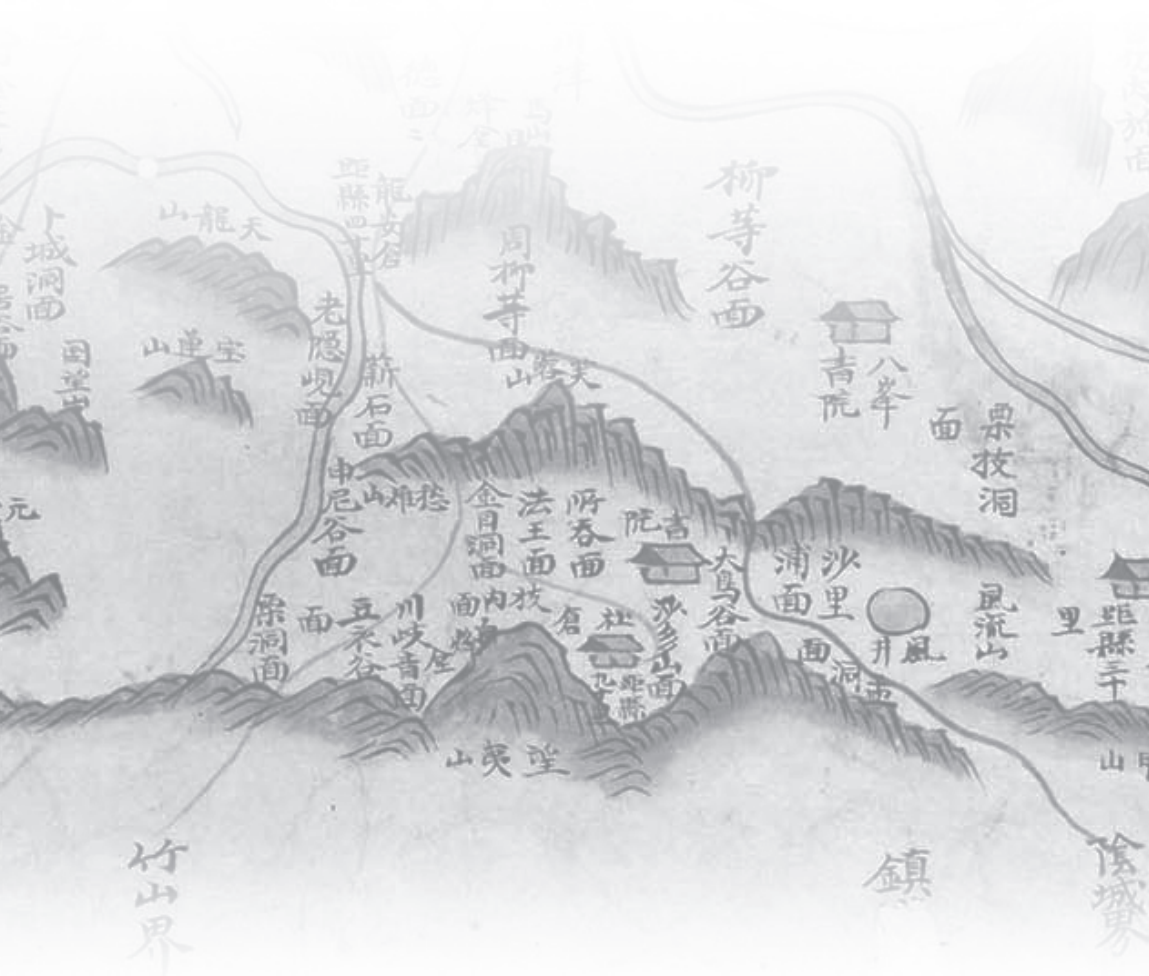


음성 망이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보존 방안



※ 본 기획논문은 2021 “음성 망이산성 종합정비계획”(음성군)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미지 출처 : http://kyujanggak.snu.ac.kr/geo/contents/con_map_list.jsp?seq=278#map_hd

기획논문

고대 · 중세 음성 망이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

이정빈*

-
- I. 머리말
 - II. 망이산성 소재지의 연혁
 - III. 중세의 봉수로 · 교통로와 마이산 · 망이산성
 - IV. 고대의 망이산성의 운용과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 중세 망이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망이산성은 고구려의 國原城 또는 皆次山郡, 신라의 國原小京 · 中原京 또는 介山郡에서 관할하였고, 고려 초기 竹山 또는 忠州에서 관할하였으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충주에서 관할하였다. 망이산성은 백제에서 시축하였다. 대체로 4세기 이후 백제가 충북 지역으로 남진하며 운용하였는데,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남진해 오며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5세기 중반 고구려가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6세기 중반까지 그의 세력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다 6세기 중반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이후 秋風嶺路・鷄立嶺路・竹嶺路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서 운용되었다. 고려 시기 망이산성은 22역도 중에서 廣州道・平丘道와 관련되었다. 그 중에서 충북 지역의 주요 역은 계림령로・추풍령로와 통하였고, 죽령로와 연결되었다. 망이산성은 경기 남부에서 충북 지역의 주요 역을 잇는 곳에 위치하였다. 조선 시기 망이산성에는 봉수가 운용되었는데, 봉수로 역시 마찬가지였다. 충북 음성-충주 및 청주 방면을 연결하는 봉수로상에 소재하면서 충북 각지의 봉수를 받아 경기도 안성으로 전달하였다. 망이산성은 삼국 항쟁기 군사적 요지였음은 물론이고 통일신라 이후 중세까지 교통로・봉수로상의 요지였던 것이다.

주제어 : 음성 望夷山城, 國原城, 皆次山郡, 中原京, 介山郡, 秋風嶺路・鷄立嶺路・竹嶺路

I. 머리말

음성 望夷山城은 삼성면 馬耳山(해발 472m)에 소재하고 있다. 고고 자료를 통해 보건대 백제시기에 축조하여 통일신라・고려 전기까지 운용하였고, 여러 문헌자료에서 살필 수 있듯 조선시기까지 주요 봉수 처의 하나였다. 고대・중세 음성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제외할 수 없는 문화재의 하나이다. 더욱이 마이산이 소재한 곳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및 이천시 울면의 경계지점으로 이 일대 교통의 요지이다. 고대와 중세의 망이산성도 교통의 요지에 축조・운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망이산성은 음성의 지역사만 아니라 고대・중세의 내륙 교통과 이를 둘러싼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성이 크다.

이미 몇 차례의 고고학적 조사 보고를 통해 대략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었는데,¹⁾ 아직까지 관련 문헌자료를 종합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대·중세 망이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마이산·망이산성 소재지의 그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에서 시작해 중세·고대로 시기를 올라가면서 관할 행정단위를 탐색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주변의 봉수로·교통로를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 망이산성의 입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삼국~통일신라 즉 고대 망이산성의 향방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망이산성 소재지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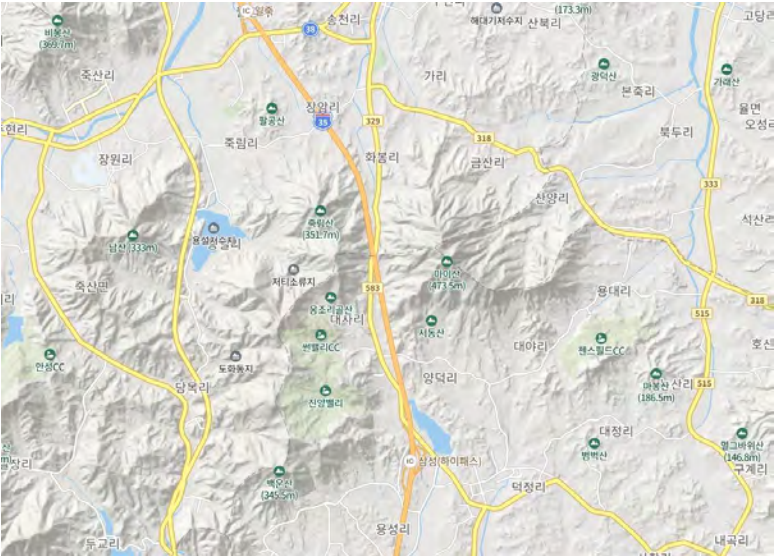
현재의 행정구역상 망이산성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대사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 소재한다. 음성군·이천시·안성시란 세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누어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음성군 삼성면은 대한제국 시기 충주군 枝內面[岐內面]이었는데, 1906년에 음성군에 편입되었고, 일제시기였던 1914년에 충주군 천기면·두의곡면·대조곡면 등을 병합해 三成面으로 이름하여 해방 이후까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²⁾ 1917년의 시점에서 삼성면 양덕리·대사리의 舊名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³⁾

1) 다음이 참고된다. 鄭永鎬, 1980, 「陰城 望夷城에 대한 小考」, 『月刊 文化財』 8月號 ; 윤내현 外,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 忠州産業大學博物館·陰城郡, 1996, 『陰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陰城郡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忠州産業大學博物館·陰城郡 ; 車勇杰 外, 2002, 『望伊山城-忠北 區間 地表調査報告書-』, 陰城郡·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 음성군지편찬위원회, 2008, 『陰城郡誌(上)』, 음성군지편찬위원회.

2)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1986, 『地名誌』, 忠淸北道, 763~764쪽.

3) 越智唯七 編纂,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兵林館印刷



<지도 1> 마이산과 음성군 삼성면의 양덕리·대사리

<표 1> 1914년 전후 지내면·삼성면의 新舊 洞里名

현 명칭	구 명칭
三成面 良德里	岐內面 德橋洞・良谷里・大寺東里
三成面 大寺里	岐內面 大寺西里

지금의 삼성면 양덕리는 1914년 지내면 덕교동과 양곡리 및 대사동리를 병합한 것이었고, 삼성면 대사리는 지내면 대사서리를 개편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망이산성은 지내면 양곡리와 대사동리·대사서리에 소재하였다. 조선 후기 행정구역은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所(1985, 太學社 翻刻), 182쪽.

<표 2> 18~19세기 지내면의 洞里와 編戶・人口

소속	洞里(官門 거리)	編戶/人口		자료
枝内面	城山里(105)	30戶/ 남자 88명 · 여자 99명	358戶, 1,968명 남자 893명 여자 1075명	『여지도 서』
	書院里(115)	55戶/ 남자 190명 · 여자 295명		
	陽村里(110)	100戶/ 남자 151명 · 여자 249명		
	大寺東里(110)	57戶/ 남자 155명 · 여자 140명		
	大寺西里(110)	58戶/ 남자 157명 · 여자 146명		
	沙川里(100)	58戶/ 남자 152명 · 여자 146명		
枝内面	城山里(105)	41戶/ 남자 108명 · 여자 110명	385戶, 1,696명 남자 839명 여자 857명	『충청도 읍지』
	書院洞里(115)	62戶/ 남자 141명 · 여자 168명		
	梁谷里(110)	48戶/ 남자 114명 · 여자 112명		
	大寺東里(110)	37戶/ 남자 74명 · 여자 68명		
	大寺西里(110)	47戶/ 남자 100명 · 여자 119명		
	沙川金井里(100)	98戶/ 남자 187명 · 여자 163명		
	嘉谷東里(100)	52戶/ 남자 115명 · 여자 112명		
枝内面	城山里	392호, 1,853명 (남자 867명, 여자 1,242명)		『호구총 수』
	龍山里			
	書院洞			
	良谷			
	大寺西			
	大寺洞坪里			
	德池里			
	嘉谷東里			
	柳器匠			

소속	洞里(官門 거리)	編戶/人口	자료
枝内里	城山里(105)	279戶, 686명 (남자 427명 · 여자 259명)	『호서읍지』
	書院洞里(115)		
	良谷里(110)		
	大寺東里(110)		
	大寺西里(110)		
	沙川金井里(100)		
	嘉谷東里(100)		
枝内面	城山(110)		『충주군읍지』
	院洞(110)		
	良谷(110)		
	大寺里(110)		
	沙川(110)		
	金井(100)		
	加西(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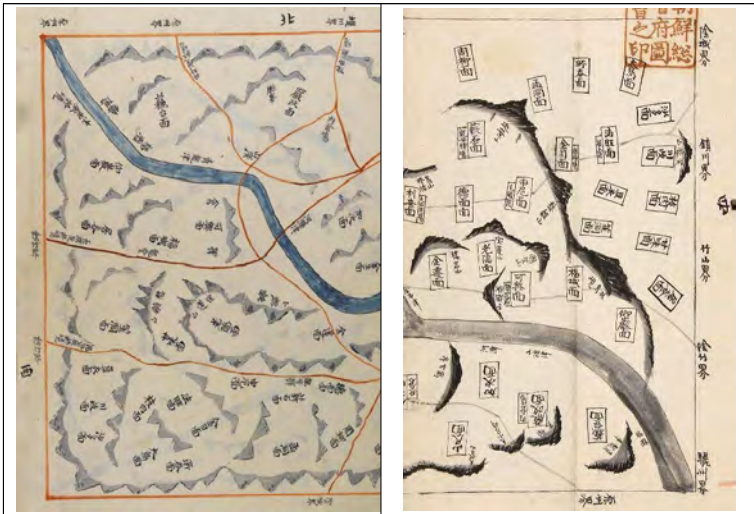
위 표는 『輿地圖書』(1757~1765) · 『忠淸道邑誌』(1780) · 『戶口總數』(1789) · 『호서읍지』(1871) · 『忠州郡邑誌』(1899)에 보이는 지내면의 동리와 편호인구를 정리한 것이다.⁴⁾ 18~19세기 지내면 일대의 행정구역과 변화를 보여준다.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첫째 洞里的 개편과 개명이다. 예컨대 『충주군읍지』에서는 대사동리 · 대사서리가 동 · 서의 구분 없이 대사로로 나오는데, 『여지도서』 · 『충청도읍지』 · 『호서읍지』를 보면 동 · 서의 구분이 확인되며, 『호구총수』에서는 대사서리와 대사동평리로 나온다. 대사동리와 대사서리의 통합 · 분리가 반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곡리의 경우 『여지도서』에서 양곡리의 명칭이 보이지 않고 陽村里가 보이는데, 『충청도읍지』부터 양촌리가 보이지 않고 양곡리가 등장한다. 양촌리에서 양곡리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구의 변화이다. 『충주군읍지』를 제외한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358戶 · 1,968명(『여지도서』에서 385戶 · 1,696명(『충청도읍지』)

4) 忠州大學校 文化産業研究所, 2009, 『忠州의 地志(飜譯本)』, 修書院 및 『輿地圖書』 上, 忠淸道 忠原(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 『충청도읍지』 忠州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 『충주군읍지』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 『호서읍지』 忠州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참조.

392호·1,853명(『호구총수』)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79戶·686명(『호서읍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지내면은 여타의 면과 비교해 인구가 적은 편이었지만,⁵⁾ 감소의 추이는 비단 지내면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이후 충주목 일대가 전반적으로 그러하였다. 국가 행정력의 약화와 더불어 유이민이 발생하였던 결과였다고 추정된다.⁶⁾



<지도 2> 『충주군읍지』(좌)와 『호서읍지』(우)에 보이는 충주 지내면
충주군읍지』(좌)와 『호서읍지』(우)에 보이는 충주 지내면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18~19세기 망이산성이 지내면에 소재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17세기 이전 충주 지역의 面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충주 지역의 행정 단위 변화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의 표가 참고된다.

- 5) 면별 평균 편호·인구는 516戶·2,834명(『여지도서』)와 477호·1,196명(『호서읍지』)이다(崔壹聖, 1997, 앞의 논문, 12~13쪽, 16~17쪽의 표5·표8 활용).
- 6) 崔壹聖, 1997, 「朝鮮時代 忠州牧 考察-坊里와 戶口를 중심으로-」, 『金顯吉教授定年紀念郷土史學論叢』, 修書院, 113~114쪽.

<표 3> 고대 · 중세 충주 지역의 군현명칭 변화

국명	명칭	자료
고구려	國原城 · 未乙省 · 託長城 · 薊長城	三史 · 高史 · 勝覺
신라	國原小京(진흥왕)	高史 · 世宗 · 勝覺
통일신라 경덕왕	中原京(경덕왕)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태조23(940)	忠州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성종2(983)	忠州牧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성종14(996)	忠州 昌化軍 · 中原道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현종9(1018)	忠州牧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고종41(1254)	國原京	高史 · 世宗 · 勝覺
고려 · 조선	忠州牧	世宗 · 勝覺
조선 명종5(1550)	維新縣	文獻
조선 선조1(1567)	忠州牧	文獻
조선 광해군5(1613)	忠州縣	文獻
조선 인조1(1623)	忠州牧	文獻
조선 인조6(1628)	忠原縣	文獻
조선 인조15(1637)	忠州牧	文獻
조선 인조25(1647)	忠原縣	文獻
조선 효종3(1652)	忠州牧	文獻
조선 숙종6(1680)	忠原縣	文獻
조선 숙종15(1689)	忠州牧	文獻
조선 영조5(1729)	忠原縣	文獻
조선 영조14(1738)	忠州牧	文獻
조선 영조15(1739)	忠原縣	文獻
조선 영조24(1748)	忠州牧	文獻
조선 영조31(1755)	忠原縣	文獻
조선 영조40(1764)	忠州牧	文獻
조선 고종32(1895)	忠州郡	文獻
국명 · 명칭	관할 행정단위	자료
고려 충주목	槐州郡 · 長淵縣 · 長豐縣 · 陰竹縣 · 陰城縣	高史
	多仁鐵所(翼安縣)	
조선 충주목	丹陽郡 · 淸風郡 · 槐山郡 · 永春縣 · 堤川縣 · 陰城縣 · 延豐縣	世宗 · 勝覺
	所仍林部曲 · 廣反石部曲 · 甘內旆部曲 · 德山鄉	

<표 3>⁷⁾은 『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에 보이는 충주 지역의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고대·중세의 충주 지역은 고구려의 국원성에서부터 행정단위의 명칭이 확인되는데,⁸⁾ 신라에서 국원소경·중원경으로 변화하였고,⁹⁾ 고려·조선에서 郡縣 등으로 개편·강등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충주목이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충주 일대의 대표적인 거점도시였던 것이다.

고려·조선의 경우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군·음성군·제천시·단양군,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지역의 일부를 속군·속현으로 두기도 하였는데, 이 중의 일부는 신라말~고려초 중원경의 관할범위에 속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충주 지역의 행정적 공간범위는 신축을 거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하다면 땅이산성은 충주 이외의 행정단위에 속하였던 적이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땅이산성 2차 발굴조사(1998년)에서 출토된 명문기와가 주목된다.¹⁰⁾ 서문지에서 4점의 峻豐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2점에 介山이란 지명이 확인되었다. 『□□峻豐四年壬戌大介山竹山』명과 『峻豐四年壬戌介山』명 기와이다. 준풍은 고려 광종대(949~975)의 연호로 4년은 서기 936년이다. 936년에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7)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 『고려사』 권56, 志10 地理1 양광도 충주목 ;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충주목 ; 『증보문헌비고』 권16, 여지도4 군현 연혁2 충청도 ; 『증보문헌비고』 권231, 직관고18, 외관2 목사. 표에서 三史·高史·世宗·勝覺·文獻으로 약칭.

8) 金正浩의 『大東地志』(1864) 忠州 沿革에서는 본래 任那國이었는데 이후 백제에서 차지해 娘子谷城(혹은 娘子城·未乙省)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9) 堤川 月光寺址의 「圓朗禪師塔碑」에 보이는 □漢江府에 주목해 9세기 신라에서 중원소경을 府로 개편·운용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황선영,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 최경선, 2021, 「府를 통해 본 9세기 신라의 지방제도 개편과 의미-「月光寺圓朗禪師塔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땅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안성시, 139~140쪽.

이와 같은 施文具로 타날된 문자기와가 경기도 안성 奉業寺에서 출토되었다(1997~2001 발굴조사).¹¹⁾ 『峻豐四年壬…』명으로 역시 936년에 제작된 것이다. 동시기에 동일 시문구로 제작된 기와가 안성 봉업사와 망이산성에 같이 사용된 셈이다.

망이산성 1차 발굴조사(1994~1996년)에서 출토된 『太平興國七年』명 기와도 참고된다.¹²⁾ 그에는 “太平興國七年/竹州凡初近”이 두 줄로 새겨져 있다. 안성 봉업사에서 『太平興國七年』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그 역시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凡初近水(仁)水(吳)(矣)”가 좌우로 양각되어 있다.¹³⁾ 태평흥국은 송 태종대(976~983)의 연호로 7년은 서기 982년(고려 성종 1년)이다. 역시 동시기에 동일 시문구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명문기와는 고려 초기에 망이산성과 안성 봉업사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준다.

그리고 보면 介山·竹山·竹州가 지금의 경기도 안성 죽산면의 고대·중세 지명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안성 죽산면은 조선시기의 竹山縣이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양광도 청주목에서 경기도 죽산현으로 소속 행정단위가 변경되었다.¹⁴⁾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서 설명하였듯 고려시기 초부터 廣州牧 竹州였는데, 본래 고구려의 皆次山郡이었고, 신라 경덕왕이 介山郡으로 개명했었다고 하였다.¹⁵⁾ 介山·竹山은 新舊 지명이 같이 사용된 사례의 하나로, 介山·

11) 京畿道博物館, 2002, 『奉業寺』, 京畿道博物館·安城市, 64~70쪽, 159쪽.

1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 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경기도 안성군, 349쪽.

13) 京畿道博物館, 2002, 162쪽.

14)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죽산현. “竹山縣 本高句麗皆次山郡 新羅改爲介山郡 高麗改爲竹州”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京畿 죽산현. “本高句麗皆次山郡 新羅改稱介山 高麗初改竹州 成宗置團練使 穆宗廢之 顯宗九年屬廣州 明宗二年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 例改今名 爲縣監 世宗十六年 自忠清道移隸京畿”

15) 『삼국사기』 권35, 잡지4 地理2 신라 개산군. “介山郡 本高句麗皆次山郡 景德王改名 今竹州 領縣一 陰竹縣 本高句麗奴音竹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 『고려사』 권56, 志10 지리1 양광도 광주목 죽주. “竹州本高句麗皆次山

竹山이 새겨진 명문기와는 삼국~고려 초기의 땅이산성이 개차산군(고구려)-개산군(신라)-죽주(고려)에서 관할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까닭에 대체로 죽주산성이 그의 치소였다고 생각되지만, 땅이산성 역시 치소의 후보지로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군사적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¹⁶⁾ 여기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충주 일대의 지명과 그 연혁이 참고된다.¹⁷⁾

<표 4>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충주 일대의 지명과 그 연혁

구분	고구려명	이칭	신라명/고려명	현 지명
1	國原城	未乙省・託長城	中原京/忠州	충북 충주
2	南川縣	南賈	黃武縣/利川縣	경기 이천
3	駒城	滅烏		경기 용인
4	仍斤內郡		槐壤郡/槐州	충북 괴산(괴산읍)
5	述川郡	省知賈	泝川郡/川寧郡	경기 여주(홍천면)
6	今勿內郡	萬弩	黑壤郡・黃壤郡/鎭州	충북 진천(진천읍)
7	道西縣	都盆	都西縣/道安縣	충북 증평(도안면)
8	仍忽		陰城縣/陰城縣	충북 음성(음성읍)
9	皆次山郡		介山郡/竹州	경기 안성(죽산)
10	奴音竹縣		陰竹縣/陰竹縣	경기 이천(장호원)
11	奈兮忽		白城郡/安城郡	경기 안성(안성동)
12	沙伏忽		赤城縣/陽城縣	경기 안성(양성면)
13	平原郡	北原	北原京/原州	강원 원주
14	奈吐郡	大提	奈堤郡/堤州	충북 제천
15	沙熱伊縣		淸風縣/淸風縣	충북 제천(청풍면)
16	赤山縣		赤山縣/丹山縣	충북 단양(단양읍)

郡 新羅景德王 改爲介山郡 高麗初 更今名” 현재의 지명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7)의 譯註 및 國史편찬위원회 한국사DB의 譯註 참조.

16) 京畿道博物館, 2002, 27~28쪽.

17) 『삼국사기』 권35, 잡지4 地理2 新羅 ; 『삼국사기』 권37, 잡지6 漢山州 참조.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대의 지명·행정구역과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망이산성이 소재한 음성군 삼성면 일대의 경우 개차산군-개산군에 속하였다고 보면, 그의 嶺縣이었던 奴音竹縣(고구려)-陰竹縣(신라)과 더불어 하나의 행정단위를 구성하였을 수 있다.¹⁸⁾

다만 위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충주 지역은 이미 삼국 시기부터 주변 지역과 일정히 구분되었고, 조선시기 이후 망이산성이 충주 지역에 속하였다고 보면, 삼국시기~고려시기에도 충주 지역과 무관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고구려와 신라에서 충주 지역에 국원성·국원소경·중원경을 설치·운용하며 그에 소속되기도 하는 등 행정단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Ⅲ. 중세의 봉수로·교통로와 마이산·망이산성

망이산성이 소재한 마이산의 입지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A-1. 烽火가 4곳이다. 梧城이다<동쪽으로 淸風·吾峴에 호응하고, 서쪽으로 翼安·馬山에 호응한다.>·大林城<서쪽으로 馬山에 호응한다>·馬山<서쪽으로 陰城 伽葉山에 호응한다.>·望伊山<동쪽으로 음성 伽葉山에 호응하고, 서쪽으로 竹山 儉丹山에 호응한다.>.¹⁹⁾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

18) 고구려의 경우 郡縣이 행정단위로서 명실상부하였는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주요 城과 대응관계를 형성한다고 파악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단위 구성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본다.

19) “烽火四處 梧城<東準淸風·吾峴, 西準翼安·馬山>·大林城<西準馬山>·馬山<西準陰城·伽葉山>·望伊山<東準陰城·伽葉山, 西準竹山·儉丹山>”

청도 충주목)

A-2. 烽火가 1곳이다. 加葉山이다<남쪽으로 忠州 任內 翼安의 馬山에 호응하고, 북쪽으로 忠州 望伊城에 호응한다.>²⁰⁾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 음성현)

A-3. 烽火가 1곳이다. [죽산]縣의 북쪽의 巾之山으로, 劔斷山이라고도 한다<동쪽으로 忠州 望伊城에 호응하고, 서쪽으로 龍仁 石城에 호응한다.>²¹⁾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죽산현)

A-4. 烽火가 1곳이다. [진천]縣 남쪽의 所伊山이다<남쪽으로 淸州 巨叱大에 호응하고, 북쪽으로 忠州 望伊城에 호응한다.>²²⁾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진천현)

A-5. 望耳城 烽燧<[忠原]縣에서 서쪽 110리에 있다. 동쪽으로 陰城 迦葉山에 호응하고, 남쪽으로 鎭川縣 所乙山에 호응하고, 서쪽으로 京畿 竹山府 巾之山에 호응한다. 別將 1인 · 監官 5인 · 軍人 100명이 있다.>²³⁾ (『輿地圖書』 上, 忠淸道 忠原)

이상의 문헌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사료 A-1)이다. 이를 보면 충주 지역에 봉수 4곳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하나가 望伊山·望伊城이었다. 마이산은 조선시기의 문헌에서 望伊山(『세종실록 지리지』)·望夷山(『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望耳山(『충청도읍지』·『여지도서』·『호서읍지』)·望爾山(『동국여지지』) 등으로 나온다. 그러다가 일제시기 이후 馬耳山으로 표기되면서 지금까지 그 명칭이 정착되었다.²⁴⁾ 본고에서는 마

20) “烽火一處 加葉山<南準忠州任內翼安馬山 北準忠州望伊城>”

21) “烽火一處 縣北巾之山 一名劔斷山<東準忠州望伊城 西準龍仁石城>.”

22) “烽火一處, 縣南所伊山<南準淸州·巨叱大 北準忠州望伊城>.”

23) “望耳城烽燧<在縣西一百十里 東應陰城迦葉山 南應鎭川縣所乙山 西應京畿竹山府巾之山 別將一人 監官五人 軍人一百名>”(http://db.history.go.kr/id/sa_036_0030_0150_0180) DB의 中之山은 巾之山の 오류임.

24) 윤내현 외, 1992, 11쪽 및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DB.

이산으로 칭하고자 한다. 각종 문헌자료에서 마이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²⁵⁾

<표 5> 조선시기 문헌자료에 보이는 마이산의 위치 및 충주의 서계

문헌명	마이산 위치	충주의 西界
『세종실록』 지리지		죽산 90리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쪽 91리	음성 51리, 여주 78리, 음죽 66리
『호서승람』		음성 51리, 여주 78리, 음죽 66리
『여지도서』	서쪽 110리	음성 51리, 진천 100리, 안성 115리, 죽산 110리, 음죽 66리
『충청도읍지』	서쪽 110리	음성 51리, 진천 100리, 안성 115리, 죽산 110리, 음죽 76리, 여주 78리
『대동지지』	서쪽 100리	음성 50리, 진천 90리, 안성 130리, 죽산 110리, 음죽 80리, 여주 55리
『호서읍지』	서쪽 110리	음성 51리, 진천 100리, 안성 115리, 죽산 110리, 음죽 76리, 여주 78리
『충주군읍지』	서쪽 110리	음성 51리, 진천 100리, 음죽 76리

충주 주치에서 서쪽으로 91~110리였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주치의 서쪽 91리에 있다고 하였고, 『대동지지』에서는 서쪽 100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여지도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리지에서는 110리에 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여지도서』 이후의 지리지에서 마이산에서 죽산까지의 거리가 각각 90리와 110리로 기술된 것처럼 각종 자료의 道里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료의 작성 내지 전거자료에서 도리의 측정이 달랐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데, 현격한 차이는 아니므로 대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5) 忠州大學校 文化産業研究所, 2009, 『忠州의 地志(飜譯本)』, 修書院 및 『輿地圖書』 上, 忠淸道 忠原(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 『충청도읍지』 忠州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 『충주군읍지』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 『호서읍지』 忠州 坊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참조.

『여지도서』에서는 마이산이 경기도 竹山에서 산맥이 뻗어 나와서 충주 望月山과 芙蓉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²⁶⁾ 이와 같은 내용은 『호서읍지』(충주) 山川 및 『충주군읍지』 山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이산이 지금의 경기도 남부에서 충청북도 충주의 주요 산지를 연결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마이산이 車嶺山脈에 위치한 사정과 통한다. 차령산맥은 음성군 북서쪽에서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750년대 초반에 제작된 「해동지도」가 참고된다.²⁷⁾



<지도 3> 「해동지도」에 보이는 망이산과 망월산

『해동지도』에서 마이산은 음죽 방면으로 망월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충주 방면으로 부용산과 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이산의 위치는 봉수와 무관치 않았다.

26) 『輿地圖書』 上, 忠淸道 忠原 山川, “望耳山<在縣西百十里 自京畿竹山來> 望月山<在縣西百十里 望耳山來>, 芙蓉山<在縣西十一里 望耳山來>”

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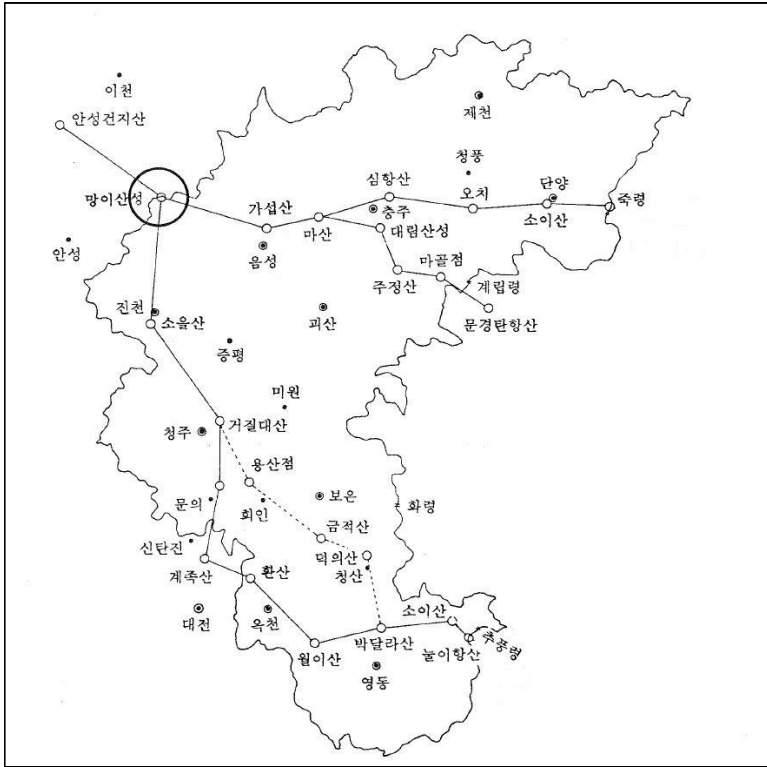
사료 A에서 마이산 내지 망이산성 봉수는 서쪽으로 죽산현 巾之山에 호응한다고 하였고(A-3), 남쪽으로 음성현 加葉山에 호응한다고 하였으며(A-2), 또한 남쪽으로 진천현 所伊山에 호응한다고 하였다(A-4). 지금의 경기도 안성에서 충북 음성·청주 방면을 연결하는 봉수로상에 소재하였던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이칭 표기가 보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설명도 거의 동일하였다.²⁸⁾ 이와 같은 망이산성 봉수의 운용은 신경준의 『道路考』 및 『증보문헌비고』에 보이는 봉수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²⁹⁾

5개 직봉 중에서 제2거(동래-한성)의 竹嶺山(순흥)-所伊山(단양)-心項(충주)-馬山(충주)-加葉山(음성)-望伊山(충주)-巾之山(죽산)-石城山(용인)의 노선상에 소재하였고, 간봉 2(初起: 거제 加羅山)의 炭項(문경)-麻骨站(연풍)-周井山(연풍)-大林城(충주)-馬山(충주: 제2거 직봉)과 이어졌으며, 간봉 9(初起: 남해 錦山)의 鷄足山(회덕)-居叱大山(청주)-所乙山(진천)-望夷城(충주)과 이어졌다. 망이산성 봉수는 충청북도 지역의 주요 봉수를 받아 경기 죽산에 전달하여 서울로 보내는 봉수로상의 중추였던 것이다.³⁰⁾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죽산현. “烽燧. 巾之山烽燧<東應忠清道忠州望夷山 西應龍仁縣寶蓋山>”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음성현. “烽燧. 迦葉山烽燧<東應忠州馬山 北應忠州望夷山>.”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진천현. “烽燧. 所乙山烽燧<在縣南七里 南應清州巨次大山 北應忠州望夷山>”

29)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1968, 『韓國軍制史』 1, 陸軍本部, 529~533쪽 ; 西原郷土文化研究會, 1991, 『忠北의 烽燧-地表調査報告書-』, 西原郷土文化研究會, 15 ; 육군군사연구소 기획·주간, 2012,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109~110쪽 ; 류명환, 2014, 『여암 신경준과 역주 道路考』, 역사문화, 393~309쪽 참조.

30)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12쪽



<지도 4> 충청지역의 봉수와 마이산 봉수(서원향토연구회, 1991)

사료 A-5의 『여지도서』에 보이듯 땅이산성 봉수에는 別將 1인·監官 5인·軍人 100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충청도읍지』·『호서읍지』까지 사료 A-5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충청도 지역의 봉수는 별장 5명 감관 1명 봉수군 100명(봉수군 25명·봉수보 75명)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³¹⁾ 땅이산성 봉수 역시 그와 같은 구성이었다고 생각된다. 『충주군읍지』(1899)에서는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였다.³²⁾ 봉수제는 이미 16세기부터 기능과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났는

31) 金周洪, 2011, 『朝鮮時代の 内地烽燧』, 忠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52~53쪽.

데, 이에 조선 후기 동안 다양한 개선 논의와 더불어 폐지와 복구를 반복하였고, 마침내 갑오개혁(1894) 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³³⁾ 망이산성 봉수 역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망이산성 봉수는 조선 시기를 통해 충북 지역 봉수로상의 중추로서 운용되었는데, 이는 마이산이 주변 일대의 조망에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B. 望爾山. [죽산]현 남쪽 25리 忠州와의 경계에 있다. 높고 둥글어 기운이 충만하니 바라보면 우뚝하다. 이 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가서 칠현산이 된다. 충주에서도 [망이산이] 보인다.³⁴⁾ (『동국여지지』 권2권, 경기 廣州鎭 竹山縣)

『동국여지지』에서 기술하였듯 마이산은 ‘높고 우뚝’하여 충주에서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이산 봉수가 충북 지역 봉수로상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까닭이 단지 지세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봉수가 그러하지만, 마이산·망이산성의 교통로상 입지와 무관치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32) 『충주군읍지』 烽燧. “望耳烽燧<在州西一百十里 今廢>

33) 李存熙, 1999, 「봉수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781~784쪽 ; 육군군사연구소 기획·주간, 2012, 72~80쪽.

34)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99A_0030_010_0070_2020_002_XML



〈지도 5〉 「雪城里程標」에 보이는 마이산과 교통로
(嶺南大學校 博物館, 1998)

위 지도는 「雪城里程標」의 일부다. 「설성이정표」는 19세기 중반 작성된 채색필사본(69.0cm×51.0cm)으로 한양에서 雪城 즉 음성까지의 주요 도로와 道里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한양에서 龍仁-陽智까지 이어지고, 양지에서 竹山과 陰竹으로 도로가 나뉜다.³⁵⁾ 그리고 竹山에서 마이산(망이산)과 七長山 사이를 지나서 鎭川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죽산-진천의 교통로는 제2직봉의 간봉 9(居叱大山(청주)-所乙山(진천)-望夷城)와 상통한다. 또한 竹山에서 館村을 통해 충주 達川으로 이어지며, 관촌에서 무극을 통해 음성으로 이어지는데, 음성 가섭산 방면이다. 직봉 제2거(죽산 건지산-망이산-음성 가섭산)와 간봉 2(음성 가섭산-마산)와 상통한다.

35) 정기범, 2002, 「朝鮮後期 忠北 東北部의 交通路-陰城地域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22, 86~88쪽 참조.

이처럼 마이산·망이산성은 봉수로와 마찬가지로, 교통로상에서 경기 남부와 충청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요지에 소재하였다. 진천-청주 방면과 음성-충주 방면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음성-충주 방면은 다음의 교통로와 밀접하였다.

B. 道路. 官門에서 동쪽으로 淸風府界 月川大路까지 25리이고, 동남쪽으로 延豐府界 葛馬峴大路까지 30리이고, 남쪽으로 槐山郡界 轍環遷小路까지 40리이고, 서쪽으로 陰城縣界 沙峴小路까지 50리이고, 서쪽으로 京畿 竹山府 淸泚川大路까지 80리이고, 서쪽으로 京畿 陰竹縣界 長厚院大路까지 70리이고, 남쪽으로 京畿 呂州牧界 牛峴小路까지 70리이고, 북쪽으로 江原道 原州牧界 大峴小路까지 60리이고, 동북쪽으로 堤川縣界 遠西小路까지 50리이다.³⁶⁾ (『輿地圖書』 上, 忠淸道 忠原)

『여지도서』에 보이는 충주 지역의 주요 도로이다. 이후 지리지의 도로조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전한다. 마이산·망이산성과 관련하여 죽산부 淸泚川大路가 주목된다. 충주 치소에서 서쪽으로 80리였다고 하였다. 청민천은 淸泚川 또는 天民川이라고도 하였다(현명 청미천).

청미천은 지금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북류하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일대까지 하곡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민천대로는 이러한 저지대에 마련된 교통로였다. 『설성이정표』에서도 죽산에서 청민천로를 통해 충주와 통하였다.³⁷⁾ 마이산·망이산성 역시 그러하였다고 생각된다.

36) “道路 自官門 東距淸風府界月川大路 二十五里 東南距延豐府界葛馬峴大路 三十里 南距槐山郡界轍環遷小路 四十里 西距陰城縣界沙峴小路 五十里 西距京畿竹山府淸泚川大路 八十里 西距京畿陰竹縣界長厚院大路 七十里 西北距京畿呂州牧界牛峴小路 七十里 北距江原道原州牧界大峴小路 六十里 東北距堤川縣界遠西小路 五十里”

37) 水系도 참고된다. 『해동역사』를 보면 『수도제강』을 인용해 錦江의 水源을 설명하였는데, 그의 북쪽 수원으로, 東津江의 근원이 忠州 望夷山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해동역사』 속집 권14, 地理考14 山水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3A_0870_010_0010_2007_008_XML



<지도 6> 『해동지도』 여주목의 天民川

이처럼 음성-충주 방면으로 이어진 교통로는 竹嶺·鷄立嶺으로 연결되었다. 이른바 죽령로(단양-영주)와 계림령로(충주-문경)였다. 마이산·망이산성에서 진천-청주 방면으로 이어진 교통로는 秋風嶺(영동-김천)과 연결되었다. 이른바 추풍령로였다. 소맥산맥을 넘어 경기도로 통하였던 주요 교통로 3곳이 마이산·망이산성과 밀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교통로는 고려 시기 開京에서 충북 지역을 경유하던 22驛道 중에서 廣州道·平丘道와 무관치 않았다.³⁸⁾ 광주도는 15역을 관장하였고, 평구도는 30역을 관장하였는데,³⁹⁾ 그 중에서 다음의 역이 마이산·망이산성과 인접하였다.

38) 鄭杓根, 2007,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39) 『고려사』 권82, 병지2 驛站. 지명은 이기백·김용선 지음,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40~246쪽 참조.

<표 6> 廣州道・平丘道 소재 마이산・망이산성 인접 譯

廣州道			
역명	고려 소재	조선 소재	현 지명
佐贊	竹州	竹山	경기도 안성
分行	竹州	竹山	경기도 안성
竹州	竹州	竹山	경기도 안성 죽산면
五行	利川	利川	경기도 이천
安利	利川	利川	경기도 이천
利川	利川	利川	경기도 이천
務劇	陰竹	陰竹	충북 음성 금왕읍
陰竹	陰竹	陰竹	경기도 이천
安富	槐州	槐山	충북 괴산
槐州	槐州	槐山	충북 괴산
平丘道			
역명	고려 소재	조선 소재	현 지명
楊花	川寧	驪州	경기도 여주
川寧	川寧	驪州	경기도 여주
嘉興	忠州	忠州	충북 충주
連原	忠州	忠州	충북 충주
黃剛	淸風	淸風	충북 제천
壽山	淸風	淸風	충북 제천 수산면
安陰	淸風	淸風	충북 제천 청풍면
淸風	淸風	淸風	충북 제천 청풍면
安壤	原州	原州	강원도 원주
神林	原州	原州	강원도 원주 신림면
泉南	堤州	堤川	충북 제천 청남동
堤州	堤州	堤川	충북 제천
延平	寧越	寧越	강원도 영월
溫山	寧越	寧越	강원도 영월
寧越	寧越	寧越	강원도 영월
靈川	丹山	丹陽	충북 단양
長林	丹山	丹陽	충북 단양
丹山	丹山	丹陽	충북 단양
義豐	永春	永春	충북 단양 영춘면
永春	永春	永春	충북 단양 영춘면
平昌	平昌	平昌	강원도 평창
新興	黃驪	驪州	경기도 여주
新律	黃驪	驪州	경기도 여주
黃利	黃驪	驪州	경기도 여주

이상의 여러 역은 嶺南 지역으로 통하던 4개의 교통로로 정리된다. 4개의 교통로란 제1로(개경 靑郊驛에서 양주-평구-원주-단양-죽령-안동-영천-東京[경주]), 제2로(청교역-南京[서울]-광주-이천-충주-계림령-예천-안동), 제3로(南京-용인-양지-죽산-충주-제2로), 제4로(죽산-청주-영동-추풍령-김천-경산부[성주])였다.⁴⁰⁾ 그리고 보면 제1로가 죽령로, 제2·3로가 계림령로, 제4로가 추풍령로와 통하였다. 제3로와 제4로가 죽산을 경유하였으므로 마이산·망이산성과 직접 연결되었고, 제1로·제2로 역시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하듯 죽령로·계림령로·추풍령로는 이미 삼국 시기부터 개통·운용되었다. 망이산성 역시 삼국 시기부터 운용되었다. 그러므로 고대의 망이산성 운용 역시 죽령로·계림령로·추풍령로와 무관치 않았다 보인다.

IV. 고대의 망이산성 운용과 역사적 의미

수차례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보건대 망이산성은 백제에서 시축하였고, 신라에서 수축하였다고 파악된다. 다만 백제·신라만 아니라 고구려 역시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양국과 상쟁하면서 망이산성 일대에 진출하여 성을 직·간접적으로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된다.⁴¹⁾ 삼국이 모두 망이산성 운용과 관련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먼저 백제의 망이산성 시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는 다루왕 36년(63)에 娘子谷城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신라에 교섭을 요청하였다고 한다.⁴²⁾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

40) 崔永俊, 1999, 『한국의 옛 길 嶺南大路』,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106~108쪽.

41) 鄭永鎬, 1980, 21~22쪽. 후속 연구를 통해 고구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지만, 고구려 남진 기지의 하나로 주목한 점은 여전히 시사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脫解尼師今 7년(63). “冬十月 百濟王拓地

못한 대부분의 지리지에서 낭자곡성은 지금의 충북 청주 지역으로 설명하였는데,⁴³⁾ 『대동지지』에서는 충주 지역으로 설명하였다.⁴⁴⁾ 충주설과 청주설이 제시된 셈이다. 지금도 의견이 나뉜다.⁴⁵⁾ 다만 어느 쪽이든 이 기사는 백제가 충북 지역으로 남진해 온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를 보면, 1세기 중·후반 백제와 신라가 蛙山·狗壤 일대에서 공방하였다고 전한다.⁴⁶⁾ 와산·구양은 지금의 충북 보은과 옥천 또는 괴산 일대로 비정된다.⁴⁷⁾ 양국의 공방 역시 백제의 충북 지역 남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술하듯 신라는 5세기 후반 이후 소백산맥을 넘어 그 일대에 진출하였다.⁴⁸⁾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문헌사료상의 시점과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주의 신봉동 고분군을 비롯한 각종 유적과 고고학적 성과를 참고해 보면, 이상과 같은 문헌사료의 시점과 내용은 3세기 중·후반~4세기 백제의 남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순조롭다.⁴⁹⁾ 이처럼 문헌사료에 보이는 백제의 남진을 고고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至娘子谷城 遣使請會 王不行”；『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多婁王 36년(63) “冬十月 王拓地 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청주목.

44) 『大東地志』 권6, 충청도 청주.

45) 金榮官, 2008,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白山學報』 82, 37~40쪽 참조.

4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脫解尼師今 8년(64). “秋八月 百濟遣兵 攻蛙山城”；『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脫解尼師今 10년(66). “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脫解尼師今 19년(75). “冬十月 百濟攻西鄙蛙山城 拔之”；『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脫解尼師今 20년(76). “秋九月 遣兵伐百濟 復取蛙山城 自百濟來居者二百餘人 盡殺之”；『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多婁王 37년(64). “王遣兵攻新羅蛙山城 不克 移兵攻狗壤城 新羅發騎兵二千 逆擊走之”；『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多婁王 48년(75). “冬十月 又攻蛙山城拔之”；『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多婁王 49년(76). “秋九月 蛙山城爲新羅所復”

47)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84쪽； 金榮官, 2008, 131쪽.

48) 양기석, 200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16~23쪽 참조.

49) 金榮官, 2008, 132쪽.

보면, 망이산성은 대체로 4세기 이후에 시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경기 남부에서 충북 지역 진출하는 데 주된 통로의 하나였고, 이후 남한강 유역 지배의 여러 거점 중의 하나로서 운용하였다고 생각된다.

4세기 후반 백제의 망이산성 운용은 고구려와 무관치 않았다. 이때부터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남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듯 고구려 군대는 阿利水 즉 한강을 도하하여 백제의 漢城을 압박하였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고, 가야 지역까지 나아가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4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진은 계림령로 또는 죽령로를 통한 것으로 이해된다.⁵⁰⁾ 대체로 지금의 강원도 서부 지역(춘천-홍천-횡성-원주-제천-단양)에서 남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망이산성이 4세기 후반 고구려 남진의 경로에 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백제에서 운용하였다고 파악된다. 다만 차령산맥의 동서 방향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망이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고구려의 남진은 5세기 이후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 고구려비』가 주목된다. 5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다수설이나,⁵¹⁾ 논란은 여전하다.⁵²⁾ 다만 적어도 5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온전히 차지하고 국원성을 운용하였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⁵³⁾ 더욱이 475년 고구려는 백제의 漢城을 함락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남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 지명 및 5세기 후반~

50) 徐榮一, 1999,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194~195쪽 ; 2000,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496쪽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61쪽.

51) 장창은, 2014, 380~391쪽 및 고광의 외,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728~730쪽 참조.

52) 특히 최근 題額 판독을 통해 대두한 5세기 후반설(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8)이 주목된다.

53) 장창은, 2014, 83쪽 참조.

6세기 전반 삼국의 국제관계를 보면, 고구려는 지금의 충북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망이산성은 이러한 무렵에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을 것이다.

고구려는 망이산성 일대에 개차산군·국원성을 두었다고 하였다. 망이산성은 개차산군(고구려)·개산군(신라)의 치소였을 수 있으며, 국원성(고구려)·국원소경·중원경(신라)에서 관할하였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고구려에서 망이산성을 직접 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고구려의 국원성은 군현이 아닌 城으로 여타의 행정단위와 구분되었고, 國原이란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6~7세기의 三京처럼 국가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고 이해된다.⁵⁴⁾ 그러므로 고구려의 국원성의 관할 내지 그와 통하는 교통로상에 소재하였던 망이산성은 그 일대에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중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적어도 교통로상으로 보아 인력과 물자를 유통하는 데 주된 통로의 하나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의 망이산성 경영은 신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는 이미 5세기 후반부터 추풍령을 넘어 금강 상류 유역에 진출하고 있었다. 예컨대 『삼국사기』를 보면 자비왕 13년(470)~17년(474)에 三年山城과 芎老城 그리고 一牟城·沙尸城·廣石城·沓達城·仇禮城·坐羅城 등을 축조하였다고 한다.⁵⁵⁾ 삼년산성은 지금의 충북 보은으로 파악되고 여타의 성 역시 충북 보은·청주(문의)·옥천·영동 등으로 비정된다.⁵⁶⁾ 5세기 후반 신라는 소맥산맥을 넘어 경북 상주에서 보은·옥천·청주 지역으로 진출해 교통로상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추풍령로를 통해 충북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54)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연구』, 서경, 378~381쪽.

5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慈悲麻立干 13년(470). “築三年山城<三年者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慈悲麻立干 14년(471). “春二月 築芎老城” ;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慈悲麻立干 17년(474).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56)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10~17쪽 참조.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는 2세기 중반에 계림령로와 죽령로를 개통하였다고 하였다.⁵⁷⁾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신라의 소맥산맥 이북 진출을 보면, 그 시점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551년 신라가 죽령을 넘어 고구려의 10郡을 차지하며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고,⁵⁸⁾ 557년 고구려의 국원성을 소경으로 삼았으며,⁵⁹⁾ 558년 王都의 貴戚子弟와 6部豪民을 이주시켰다.⁶⁰⁾ 북진을 통해 소맥산맥 너머 남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다. 『단양 적성비』를 통해 보건대 죽령로는 북진의 경로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데,⁶¹⁾ 이 무렵 삼국 간의 항쟁을 통해 보건대 추풍령로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교통로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⁶²⁾ 이로 보아 대체로 6세기 중반 이후 계림령로·죽령로를 官道로서 정비·운용하였다고 것으로 이해된다.⁶³⁾ 이를 전후해서 망이산성은 신라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6세기 중반 이후 통일신라까지 망이산성은 한강 유역에서 추풍령로·계림령로·죽령로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서 운용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6세기 중반~7세기 삼국 항쟁에서 망이산성은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동진을 방어하면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568년 北漢山州의 폐지와 南川州의 설치가 주목된다.⁶⁴⁾ 新州의 주치를 북한산에서 남천으로

57)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阿達羅尼師今 3년(156). “夏四月 隕霜 開雞立嶺路”;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5년(158). “春三月 開竹嶺”

5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2년(551).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十二年辛未[551]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逆滄·非西逆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末珍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 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5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8년(557). “以國原爲小京”

6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9년(558).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61) 양기석, 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414쪽.

62) 장창은, 2020, 100~105쪽.

63) 徐榮一, 1999, 185쪽, 201쪽.

6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興王 29년(568).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

옳긴 것이다. 南川은 지금의 경기도 이천으로, 停 군단[南川停]이 주둔하였다.⁶⁵⁾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도 南川軍主가 확인된다. 604년 신주의 주치는 다시 북한산으로 이동하였지만, 남천주의 설치와 정 군단의 주둔은 6세기 후반 그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진 사정을 말해준다. 망이산성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로부터 망이산성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음은 물론이고 인적·물적 자원의 유통하는 데 주된 통로의 하나로서 중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망이산성의 중요성은 교통로의 측면에서 한층 부각되었다고 짐작된다. 망이산성에서 추풍령로 방면으로 西原京이 소재하였고, 계림령로·죽령로 방면으로 中原京이 소재하였고, 또한 北原京이 인접하였다. 망이산성은 신라의 5小京 중에서 소백산맥 외곽의 3小京과 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3소경은 소백산맥을 넘어 왕도로 통하는 관문이었다.⁶⁶⁾ 소경 외곽의 주요 물자가 집적되었고, 왕경으로 운송되었다.⁶⁷⁾ 그러므로 그와 인접하였던 망이산성 역시 교통로상의 중요성이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로상의 중요성은 전술하였던 것처럼 고려와 조선 시기까지 마찬가지였다. 고대와 중세를 통해 한강과 금강·낙동강을 잇는 내륙교통로상의 요지로서 운용되었던 것이다.

한국사 속에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은 각지의 문물이 교차하던 곳이었다. 여러 지역의 문물이 교류되고 융합되었다. 흔히 이를 중원문화의 주된 특징으로 지적한다. 망이산성은 내륙교통로상의 요지로서 한강과 금강 낙동강 지역을 연결하는 데 기능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망이산성은 중원 문화의 특징을 말해주는 문화재의 하나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65) 『삼국사기』 권40, 잡지9 武官. “眞興王二十九年[568] 罷新州停 置南川停”

66) 여호규, 2003,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총론과 도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42쪽.

67) 여호규, 2003, 145~146쪽.

V. 맺음말

망이산성은 고구려의 국원성 또는 개차산군, 신라의 국원소경·중원경 또는 개산군에서 관할하였고, 고려 초기 죽산 또는 충주에서 관할하였으며, 이후 조선 후기 충주에서 관할하였다. 조선 후기의 경우 충주군 지내면에 속하였고, 구체적으로 양곡리(양촌리)·대사리(東里·西里)에 소재하였다. 그러다 지내면이 1906년에 음성군에 편입되었고, 일제시기였던 1914년에 삼성면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망이산성은 백제에서 시축하였다. 대체로 4세기 이후 백제가 충북 지역으로 남진하며 운용되었다고 생각되는데,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남진해 오며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5세기 중반 고구려가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6세기 중반까지 그의 세력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다 6세기 중반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이후 추풍령로·계립령로·죽령로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서 운용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선 시기까지 마찬가지였다.

고려 시기 망이산성은 22역도 중에서 廣州道·平丘道와 관련되었다. 그 중에서 충북 지역의 주요 역은 계립령로·추풍령로와 통하였고, 죽령로와 연결되었다. 망이산성은 경기 남부에서 충북 지역의 주요 역을 잇는 곳에 위치하였다. 추풍령로·계립령로·죽령로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서 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시기 역시 그러하였다. 조선 시기 망이산성에는 봉수가 운용되었는데, 봉수로 역시 마찬가지였다. 충북 음성-충주 및 청주 방면을 연결하는 봉수로상에 소재하면서 충북 각지의 봉수를 받아 경기도 안성으로 전달하였다. 삼국 항쟁기 군사적 요지였음은 물론이고 통일신라 이후 중세까지 교통로·봉수로상의 요지였던 것이다.

[투고일: 2021.11.13,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한국고전종합DB

京畿道博物館, 2002, 『奉業寺』, 京畿道博物館・安城市.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8.

고광의 外,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金周洪, 2011, 『朝鮮時代の 内地烽燧』, 忠北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 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류명환, 2014, 『여암 신경준과 역주 道路考』, 역사문화.

嶺南大學校 博物館, 1998, 『(嶺南大博物館 所藏)韓國의 옛 地圖(圖版編)』, 嶺南大學校 博物館.

徐榮一, 1999, 『新羅 陸上交通路 研究』, 학연문화사.

徐榮一, 2000,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西原郷土文化研究會, 1991, 『忠北의 烽燧-地表調査報告書-』, 西原郷土文化研究會, 15.

양기석, 200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양기석, 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여호규, 2003,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춘락과 도시-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 『한국군사사』 13, 육군본부.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1968, 『韓國軍制史』 1, 陸軍本部.

윤내현 外,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음성군지편찬위원회, 2008, 『陰城郡誌(上)』, 음성군지편찬위원회.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연구』, 서경.
- 李存熙, 1999, 「봉수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 정기범, 2002, 「朝鮮後期 忠北 東北部의 交通路-陰城地域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22.
- 鄭永鎬, 1980, 「陰城 望夷城에 대한 小考」, 『月刊 文化財』 8月號.
- 鄭杓根, 2007,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車勇杰 外, 2002, 『望伊山城-忠北 區間 地表調査 報告書-』, 陰城郡·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 최경선, 2021, 「府를 통해 본 9세기 신라의 지방제도 개편과 의미-「月光寺圓朗禪師塔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崔永俊, 1999, 『한국의 옛 길 嶺南大路』,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 崔壹聖, 1997, 「朝鮮時代 忠州牧 考察-坊里와 戶口를 중심으로-」, 『金顯吉教授定年紀念鄉土史學論叢』, 修書院.
-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3, 『신봉동 고분군을 새롭게 보다』, 학연문화사.
- 忠州大學校 文化產業研究所, 2009, 『忠州의 地志(翻譯本)』, 修書院.
- 忠州産業大學博物館·陰城郡, 1996, 『陰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陰城郡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忠州産業大學博物館.
-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1986, 『地名誌』, 忠淸北道.
- 황선영,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 越智唯七 編纂,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兵林館印刷所(1985, 太學社 翻刻).